

Int. Environmental Theater Festival in Yeongdeok



# 국제환경연극제 in영덕

## 2022.08.01~08.07



주최

나주팔용직업연구소

영덕문화  
리마지니

주관

영덕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의: 영덕문화관광재단 054-730-5831

www.kr  
영덕문화재단홈페이지  
나주팔용직업연구소 강경혜순 프로젝트  
2022국제환경연극제 블로그

국제환경연극제

@int2022

# 2022국제환경연극제

## Int.Environmental Theater Festival in Yeongdeok

2022국제환경연극제는 국내외 공연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예술 축제로,

건강한 생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예술적 상상력과 열망을 지역에 펼쳐냅니다.

This community art festival in the district of Yeongdeok-gun aims to inspire artistic imagination to spread ecological consciousness in the region.

지구촌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연극으로 구현하는 국내외 젊은 연극인들의 교류를 통해 침체된 지역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생태 전환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It aims to become an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that breathes life into the stagnant local community and creates a brighter future for the coming generations through exchanges between young domestic and foreign ecologically-conscious theater artists.

**기간: 2022년 8월 1일 ~ 7일**

**장소: 영덕군 일대**

**Period : 2022. 8.1 ~ 7.**

**Location : 영덕군 일대 Yeongdeok**



영덕문화관광재단

나무닭움직임연구소 공공예술프로젝트

2022 국제환경연극제 블로그



국제환경연극제



@ietf2022



2022 국제환경연극제

문의 : 영덕문화관광재단 054-730-5831



# 일정별 공연 프로그램 시간표

##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

- 8월 2일 극단 더베프 '초록드라마텐트극장' (50분) 10:30
- 8월 3일 해의 아이들 '헨젤과 새엄마' (50분) 10:30
- 8월 4일 창작집단 옆집사는 연극쟁이 '할매는 힘이 세다'(45분) 10:30
- 8월 5일 극단상사화 '퍼펫한타지, 허니비 프로젝트' (40분) 10:30
- 8월 6일 이야기꾼의 책공연 '마쯔와 신기한 돌' (45분) 10:30

## 영덕 야성초등학교 앞마당 19:00~21:00

- 8월 1일 개막공연 (20분)  
금설복합예술소 '크락션' (30분) / 온앤오프무용단 '월바디' (20분)
- 8월 2일 문화공작소 상상마루 '넌버벌 네네네' (50분) / 조성진 '원앙부인의 꽃밭' (25분)
- 8월 3일 도도연극과교육연구소 '메가폰스프레히콜연:그대없이는못살아' (30분)  
예술공동체 예인청 '봉사열전' (60분)
- 8월 4일 니콘 (태국) '잘 자' (40분) / 극단 괴물 'flow:er' (70분)
- 8월 5일 한국스페인일본합작 '연옥' (20분) / 창작집단 지오 '양팔저울' (70분)
- 8월 6일 놀이패 한라산 '세경놀이' (60분) / 유진규 '모든 사람은 아프다' (40분)
- 8월 7일 '환경과 소리' 워크숍 발표회 (20분) / 폐막공연 '큰 입 속으로' (50분)

## 영덕청소년야영장 환경연극 캠프공연장 19:00~21:00

- 8월 3일 극단필통 물싸움 너무오래된 전쟁 (35분)  
온라인공연- 클레어돌란(미국) '허리케인 칸타스토리아' (20분)  
특별 영화 상영 'Planet A' (74분)
- 8월 4일 비주얼씨어터꽃 '한 사람을 위한 마사지사' (50분)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60분)  
온라인-시네마틱씨어터(홍콩) '불사조의 운명' (30분) (작가와의 대화)
- 8월 5일 마임공작소판 '고재경마임쇼' (30분)  
관민아 '빛으로 그리는 섬' (40분)  
온라인공연 - CCCD & Uday Sathala(홍콩) '변두리의 내 인생' (35분)
- 8월 6일 홀라와 리사이클 악기 워크숍 발표 (15분)  
극단상사화 '퍼펫한타지, 허니비프로젝트' (40분)  
극단 강만홍 '깨움' (40분) / 온라인공연-빌 에이치슨(영국) '조정' (20분)

# Performance Schedule

## Yeongdeok Office of Education premiere hall

- 08.02 The Befu Company 'Green Drama Tent Theatre' (50m) 10:30
- 08.03 Children of the Sun 'Hansel and stepmom' (50m) 10:30
- 08.04 Creative Group 'Neighbor Actor' Grandma is strong (45m) 10:30
- 08.05 Theater Sangsa-Hwa 'Puppet Fantasy, Honey Bee Project' (40m) 10:30
- 08.06 Bookteller's Quilt 'Matz and the Magical Stones' (45m) 10:30

## Yeongdeok Wild Elementary School front yard 19:00~21:00

- 08.01 opening performance (20m)  
Gumsul 'Klaxon' (30m) / On and Off Dance Company 'Warm Body' (20m)
- 08.02 SangSangMaru 'nonverbal NENENE' (50m)  
Seongjin Cho 'Flower Garden of Madam Wonang' (25m)
- 08.03 Theatre Company Dodo Megafon Sprechchor <We can't live without you.> (30m)  
YeinChung Art Performance Group 'A talent show of the blind' (60m)
- 08.04 Nikorn 'Sleep Tight' (40m) / Troupe Monster 'flow:er' (70m)
- 08.05 Korea, Spain and Japan collaborative work 'Purgatory'(20m)  
Creative Team G.O 'Weighing scales' (70m)
- 08.06 Noripae Hallasan 'Segyeong Nori' (60m) / Jingyu Yu 'Everyone isill' (40m)
- 08.07 'Environment and Sound' Workshop Presentations (20m)  
Closing Performance 'Into the Big Mouth' (50m)

## Yeongdeok Environmental Theater Camp Venue 19:00~21:00

- 08.03 FEEL-TONG THEATER'Water Fight' (35m)  
Online Performance- Clare Dolan 'Hurricane cantastoria' (20m)  
Special Film Screening 'Planet A' (74m)
- 08.04 CCOT 'Massager for only one person' (50m)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60m)  
Online-Cinematic Theatre(Hong Kong) 'Fate of a Phoenix (30m)
- 08.05 Mime Factory PAN 'GOJAEKYEONG MIMESHOW' (30m)  
KWAK MINA 'Island' (40m)  
Online-CCCD (Hong Kong) 'My Life on the fringe (35m)
- 08.06 HOOLA 'recycled instruments for outdoor play' (15m)  
Theater Sangsa-Hwa 'Puppet Fantasy, Honey Bee Project' (40m)  
Manhong Kang 'Awakening' (40m) /Online- Bill Aitchison 'Adjustment' (20m)



## 영덕읍 거리공연

- 8월 1일 개막 퍼레이드(20분) 18:00
- 8월 2일 백승환 마임 '인어인간' (25분) 17:00
- 8월 3일 백승환 마임 '인어인간' (25분) 17:00
- 8월 4일 극단 필통 '물싸움- 너무 오래된 전쟁' (25분) 18:00
- 8월 5일 비주얼씨어터 꽃 '한 사람을 위한 마사지사' (50분) 18:00
- 8월 6일 창작극단분홍양말 '초보목수와 목각인형'(30분) 17:00
- 8월 7일 마임공작소판 '고재경마임쇼' (30분) 17:00  
환경연극 퍼레이드 (30분) 17:00

## 영덕읍 덕곡천 21:00~22:00

- 8월 1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유상통 프로젝트 '싸운드 씨커스' (40분)
- 8월 2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설호종과 플라멩코 (30분)
- 8월 3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비디오로즈, 이내, 팻햄스터&강뉴 (60분)
- 8월 4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올리아네 가브리엘 외 (30분)
- 8월 5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미루, 박선주&하루, 팻햄스터&강뉴 (60분)
- 8월 6일 콘서트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미루, 아이씨밴드 (45분)

## 마을공연 저녁 19:00~21:00

- 8월 2일 유상통프로젝트 '싸운드씨커스' (35분) / 백승환마임 '인어인간' (25분)  
백승환마임 '인어인간' (25분)
- 8월 3일 문화공작소 상상마루 '년버벌 네네네' (50분)
- 8월 4일 도도연극과 교육연구소 '메가폰스프레히콜:그대아 없이는 못살아' (30분)  
예술공동체 예인청 '봉사열전' (60분)
- 8월 5일 극단 상사화 '퍼핏환타지, 허니비프로젝트' (35분)  
창작집단 옆집사는 연극쟁이'할매는힘이세다' (45분)
- 8월 6일 마임공작소판 '고재경마임쇼' (30분)  
창작극단 분홍양말 '초보목수와 목각인형' (30분)

## Yeongdeok-eup Street performances

- 08.02 Baek Seung Hwan 'Merman' (25m) 17:00
- 08.03 Baek Seung Hwan 'Merman' (25m) 17:00
- 08.04 FEEL-TONG THEATER 'Water Fight' (35m) 18:00
- 08.05 CCOT 'Massager for only one person' (50m) 18:00
- 08.06 Theatre Pinksocks 'Carpenter with Marionette' (30m) 17:00
- 08.07 Mime Factory PAN 'GOJAEKYEONG MIMESHOW' (30m) 17:00

## Deokgokcheon Stream in Yeongdeok-eup 21:00~22:00

- 08.01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 UST Project 'Sod Mix' (35m)
- 08.02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 Kaidas (30m)
- 08.03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 Video Rose, ine, Fat Hamster & Kang new (60m)
- 08.04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Juliane Gabrieltc (30m)
- 08.05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 MIRU, Park sunju, Harulev, Fat Hamster & Kang new (60m)
- 08.06 Concert 'Singing of Life, Peace, and Nature' - MIRU, ICBand (45m)

## Town Performance (Evening) 19:00~21:00

- 08.01 Opening performance (20m) 18:00
- 08.02 Baek Seung Hwan 'Merman' (25m) 17:00
- 08.03 Baek Seung Hwan 'Merman' (25m) 17:00
- 08.04 FEEL-TONG THEATER 'Water Fight' (35m) 18:00
- 08.05 CCOT 'Massager for only one person' (50m) 18:00
- 08.06 Theatre Pinksocks 'Carpenter with Marionette' (30m) 17:00
- 08.07 Mime Factory PAN 'GOJAEKYEONG MIMESHOW' (30m) 17:00  
Environmental Theater Parade(30m) 17:00

# 작품소개 - 해외초청작품

## Invited Foreign Artists Works

### 허리케인선언문 Hurricane Manifesto



8월 3일 19:4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유튜브)

단체명: 빵과 인형극단 (Bread & Puppet theater)

국가: 미국 (America)

연출 및 출연: 클레어돌란 (Calare Dolan)

칸타스토리아는 노래하는 내레이션 과 함께 그려진 이미지를 표시하는 고대 공연 형식이다. 이 쇼에서 Clare Dolan은 자연과 서로 단절된 삶의 위험에 대해 인류에게 말하는 허리케인의 목소리를 의인화하면서 이 오래된 공연 형식에 현대적인 콘텐츠를 붙여넣었다.

A Cantastoria is an ancient form of performance that displays visual art with singing narration. In the show, Clare Dolan breathes modern content into this old-fashioned performance format, personifying the voice of a hurricane speaking to humanity about the dangers of living disconnected from nature.

### 잠자 Sleep Tight

8월 4일 20:2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8x8 극단 (Thailand Theater Company 8\*8)

국가: 태국 (Thailand)

연출 및 출연: 니콘 (Nikorn)



슬립타이트는 관객들을 공간 속으로 초대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자게 하는 몰입형 공연이다. 공연 속의 이야기들은 일종의 치료적 어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관객의 영혼을 위로하고 안정을 이끌어내는 조화로운 자연의 이야기다. 워크숍을 통해 태국인의 이야기 1편과 한국 배우의 이야기 3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Sleep Tight is an immersive performance that invites the audience into the space and puts them to sleep while listening to stories. The stories in the performance have a therapeutic tone, reducing stress and anxiety to comfort the audience's soul to bring stability. It is a story of harmonious nature. Through the workshop, one story of a Thai actor and three stories of a Korean actor will be produced.



# 변두리의 내 인생 My Life on the Fringe



8월 5일 20:3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유튜브)

단체명: CCCD

국가: 홍콩, 인도 (Hong Kong, India)

-작,연출: Mok Chiu Yu, Indy Lee

-출연: Uday Sathala (India)

이 독특한 독주극은 홍콩, 타이포, 하이데라바드에서 인도이야기를 전한다.

전통무용에서 현대인도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다룬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인도로 온 Uday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적 균형을 생각해본다.

This unique solo play tells the story of India in Hong Kong, Tai Po, and Hyderabad. It covers a variety of styles,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Indian dance. Through Uday who comes to India to fulfill his dream, we become more conscious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logical balance.

# 불사조의 운명 Fate of a phoenix

8월 4일 21: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유튜브)

단체명: Cinematic Theater

국가: 홍콩 (Hong Kong)

연출, 작가: Carmen, Ching-man Lo

출연: Samantha, Bing-ying Tse



고대 중국 신화를 현대적 관점으로 각색한 우화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자연을 파괴하고 무해한 새 Jingjing에게 해를 끼친다.

인간에게 물을 빼앗아 복수하고자 하는 새의 이야기를 시, 노래, 춤, 제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1인극이다.

상상과 현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얽힌 요소들 역시 작품의 특징 중 하나다.

This fable is a modern adaptation of ancient Chinese mythology.

Human selfishness and greed destroy nature and harm the harmless bird Jingjing.

It is a one-person play that expresses the story of a bird seeking revenge by stealing water from humans in the form of poetry, song, dance, and ritual. Elements intertwined with imagination and reality, past and present are al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 조정 Adjustment



8월 6일 21: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유튜브)

단체명: Bill Aitchison

국가: 영국 (United Kingdom)

연출 및 출연: Bill Aitchison

지구는 물을 모으고 남극이 위치하는 곳에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발견은 아이스크림 형태의 실제 얼음을 사용하여 물방울이 더 많이 떨어지게끔 하였다.

액션은 단순하지만, 퍼포먼스가 쉽지 않고 고유의 리듬과 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결국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적인 현상이 결합된 내러티브이다.

It is a performance making use of a public statue.

This is a popular tourist photo shoot spot. The earth collects water and the water drips from the Antarctic, which is expressed using an ice cream. It is an attempt to combine artificial and natural phenomena.

## 연옥 Purgatory

8월 5일 19:00

영덕아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한국, 스페인, 일본 합작

국가: 한국, 스페인, 일본

연출, 작가: 협력연출 (도유, 한창호, 아르나우, 이시이)

음악: 아르나우

의상, 무대: 공동협력



단테의 여행기, 중간 지점 연옥은 현 세상과 가장 닮은 구원과 갈망의 장소인 연옥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희망을 꿈꾼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무용수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통적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In Purgatory, the midpoint of Dante's travels, the place of salvation and longing that most resembles the present world, we dream of the hope of going to heaven.

Through the cooperation of dancers living in different cultures, we want to explore the common human essence and share the beauty of in-depth literary works.

# 작품소개 - 국내초청작품

## Invited Works

### 세경놀이 Segyeong Nori



8월 6일 19:0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놀이패하라산 (Noripae Hallasan)

극작: 장윤식

연출: 윤미란

출연진: 윤현숙, 윤미란, 김수보, 신제균, 우승혁, 한송이,

최안정, 신현중, 현다빈, 박우진

마당굿 [세경놀이]는 제주도 신화의 농신인 자चेongbi 이야기와 제주무속의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놀이 '세경놀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화의 의미와 굿놀이의 놀이정신을 근간으로 새롭게 풀어낸 제주도 전형의 마당굿이라 할 수 있다.

Madang-gut [Sekyungnori] is based on the story of Jacheongbi, a peasant deity of Jeju island myth. 'Sekyungnori' is a Gutnori, or a type of traditional ritual, that prays for prosperity and well-being of the village of Jeju shama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ypical madang-gut of Jeju island, which is revised based on the play spirit of Gutnori.

### 웬바디 Warm Body

8월 1일 20:0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온앤오프무용단 (On and Off Dance Company)

안무: 한창호

음악: 비선형

출연진: 김강현, 옥빛나, 이윤하, 김인경,, 배준호, 함지현, 박희

진, 오세빈, 정가람, 정혜원, 도유



생태계의 삶의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작업은 시작했다.

생태계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있다. 마음의 생태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나를 찾아야 하며, 그 안에는 느낌이라는 시간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How can we find the speed of life of an ecosystem? Ecosystems exist not only in nature, but also in the human mind. I believe that the quality of life is determined by the ecosystem of our minds. Therefore, taking care of your own ecosystem is very important. And you one needs the slowness of time and tenderness as well as be able to find oneself.



# 메가폰 슈프레히콜 : 그대 없이는 못살아 Megafon Sprechchor : We can't live without you



8월 3일 19:0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8월 4일 19:00 마을 공연

단체명: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Theater DoDo)  
극작, 연출: 이현순  
출연: 하인숙, 신명자, 박미리아, 손병숙, 김영미, 윤혜선,  
박정희, 김삼희, 박재연, 장선주

슈프레히콜(Sprechchor)은 독일어 'Sprehen(말하다)'과 'Chor(합창)'의 합성어로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전파된 시위 형식의 전위연극이다. 간결한 시구, 합창, 안무의 콤비네이션으로 구성되는 슈프레히콜은 보통 여러 명의 시민/예술가들이 한 팀을 이뤄 거리나 공적 공간에 개입하여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현안을 예술적으로 다룬다.

Sprechchor is a combination of the German words 'Sprehen' (to speak) and 'Chor' (chorus). It is an avant-garde play that began in Germany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pread to Korea to protest against Japanese colonialism.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concise verse, chorus, and choreography, The Sprechchor usually involves several citizens/artists as a team and uses the street or public space to artistically deal with lo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 모든 사람은 아프다 Everyone is ill

8월 6일 20:1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유진규 (Jingyu Yu )  
연출, 극작: 유진규  
출연: 유진규-마임, 강해진-즉흥 바이올린 연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고립감 그리고 우울감은 나의 마음과 몸이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 작품은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코로나블루를 치유하기 위해 실존과 내면을 해부하듯이 드러낸다. 아울러 병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관계지만 죽음이 삶에서 그리 멀지않은 것임도 알게한다. 몸과 마음의 병,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 시키면서 오히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불러 일으킨다.

Feelings of anxiety, isolation, and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cause abnormal symptoms in my mind and body. When the mind hurts, the body hurts. This work dissects and reveals the existence and inner self as if performing a surgery to heal the Corona Blues, which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n addition, although sickness and death are unavoidable, it also makes us realize that death is not far from life. By highlighting the negative elements of physical and mental illness, pain, and death, it rather evokes a positive will for life.

# 원앙부인의 꽃밭 Flower Garden of Madam Wonang



8월 2일 20:00

영덕아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마임씨어터 빈탕노리  
(Mime Theater Bintang Nori)  
연출,극작,출연: 조성진

원앙부인의 꽃밭은 한화의례를 위한 퍼포먼스다.

월인석보에 나오는 무가 '원앙부인 본풀이'에 도종환의 시 '꽃밭이 겹쳐진다. 삶의 분향인 꽃밭과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원앙부인의 이야기를 설치와 마임 그리고 한지인형 등을 활용한 복합장르로 그려낸다.

Madame Wonang's flower garden is a performance for the flower arrangement ceremony. Jonghwan Do's poem 'Flower Field' is superimposed on the samurai song 'Mandarin Lady Bonpuri' in the Wolinseokbo. It depicts the story of a flower garden, the hometown of life, and the story of a woman who experiences death and comes back to life in a complex genre using installations, mimes, and Korean paper dolls.

## 봉사열전 A talent show of the blind

8월 3일 19:30 - 영덕아성초등학교 앞마당

8월 4일 19:30 마을 공연

단체명: 예술공동체 예인청  
(Yeinchung Art PerformanceGroup)

연출: 황지인

극작(각본): 예인청 공동창작

출연진: 황지인 박준식 이태영 김세진 박정남 이재일  
김정호 한석현 김은경 최영훈 박성규 조민수



마당에서 연희된 전통의약 가. 무 총체극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지만 일삼는 뽕파라는 여인이 등장하여 관객들을 우롱한다. 심청전의 뽕파와 봉사마당의 해학적인 부분과 영호남의 언어와 소리를 접목시켜 재구성하였다.

In this traditional total play consisting of traditional songs, dances, and sounds, a woman named Pongpa who does only the worst things in this world appears and mocks her audience. It was reconstructed by combining the humorous parts of Simcheongjeon's Pongpa and Bongsamadang with the languages and sounds of Yeongnam and Honam.

# 플래닛A Planet A



8월 3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감독: 이하루 (Haru Lev)

뮤지션: 데드버튼즈, 허클베리핀, 비디오로즈, HOOLA, 나가, 이하루, 이나, 미루, MUTO, 까르, 이하, 낯선 무화과, 팻햄스터, 빌리카터, 1.5도 화음, 박선주, 공중그늘

'Planet A'라는 이름은 인간동물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다른 지구 생명체,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며 이를 '발전' 혹은 '경제 성장'이라 정당화하고, 스스로 잘한다(A)고 평가하며 우쭐해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영한다.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연대하고, 투쟁하고자 기획된 실험적 옴니버스식 뮤지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The title 'Planet A' signifies an arrogance that justifies and takes pride in the domination and the merciless destruction of other life forms, nature, and ecosystems in the name of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t is an experimental omniverse-style musical documentary project designed to face the truth hidden behind the system while creating solidarity.

## 큰 입 속으로 into the Big Mouth

8월 7일 19:30

여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나무뿔움직임연구소

(Namodak Movement Laboratory)

연출, 각색: 장소익

극작: 임은혜



소비사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낯선 시선으로 재발견하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 큰 입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쓰다가 폐기처분된 존재들을 삼키는 라고통을 겪고 있는 대자연을 상징한다. 국내외 예술가들과 전국 각지에서 온 캠프 참여자들이 장다리, 탈, 저글링, 리사이클링악기 제작 등 환경연극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한 100인의 야외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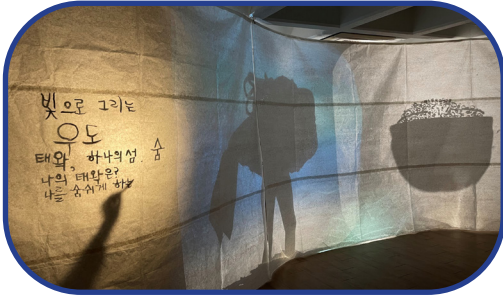
Garbage produced by the consumer society is viewed from an unfamiliar perspective to help us reflect on our consumption. The big mouth symbolizes Mother Nature that is suffering from swallowing the constant flow of discarded objects. This is an outdoor play for 100 participants produced by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and camp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ich uses stilts, masks, juggling, and recycled musical instruments, created during environmental play production workshops.



# 작품소개 - 국내선정작품

## Selected Works

### 빛으로 그리는 섬 Island



8월 5일 19:4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단체명: 콰민아 (Kwak Mina)  
창작 및 출연: 콰민아 (Kwak Mina)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 보낸 시간들의 몇 조각을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로 담았다. 빛의 탐구와 인간이 경험한 그림자의 속성에 대한 궁리를 통해 형상의 농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우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새로운 상상력과 의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The time spent in Udo, an island within an island, are captured through light and shadow. Through the exploration of light and shadows, the ingenious properties of representation are visually expressed. It is an attempt to discover new names filled with imagination and meanings for everything we encounter in Udo.

### 깨움 Awakening

8월 6일 20:2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단체명: 극단 강만홍 (Theater Company Manhong Kang)

연출: 강만홍

극작(각본): 강만홍

출연진: 강만홍, 곽수정



<깨움 AWAKENING>은 국내초연작이다.

빈 무대, 허공에 매달린 구멍 뚫린 놋그릇을 중심으로 남정네와 아내의 빨강, 파랑, 깨움, 씻김, 떨림, 향, 떠남이라는 주제의 장면속에서 자연과 치유, 환경을 기반으로 한 년버벌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깨움의 주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AWAKENING> is a domestic premiere. On an empty stage, a brass vessel with a hole hangs in the air. Jeongne Nam and his wife's movements are based on nature, healing, and environment and the scenes have several themes such as red, blue, awakening, washing, shaking, incense, and leaving. Through non-verbal body movements it captures the idea of 'awakening'.

# Flow:er



8월 4일 19:00

영덕아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극단 괴물 (Troupe Monster)

연출: 김정희

극작: 공동창작

출연진: 임장후 박미란 김미정 최문석 김유정

실제 우리가 사용하던 플라스틱들을 활용하여 무대를 채우고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초점을 옮겨가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안일한 생각, 부정적 시선, 욕심, 탐욕등을 보여주고 마주하며 누구하나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아야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모습이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이야기한다.

We use used plastic to fill the stage and through an intertemporal and interspatial lens, we aim to show and confront people's complacency, negative gaze, and greed about the environment. By showing that the responsibility doesn't simply lie on one individual but on all of us, we aim to instill thoughts and actions for change and talk about the state of our future if we continue to live the way we live.

## 퍼핏환타지, 허니비프로젝트 Honey Bee Project, Puppet fantasy

8월 5일 19:00 마을공연

8월 6일 19:25 -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단체명: 극단 상사화 (Theatre Sangsa-Hwa)

연출, 극작: 고규미

출연: 고규미



허니비 프로젝트는 작은 꿀벌이 자연과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에게도 자연의 혜택을 선물해준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 팝업북 무대에서 산과 들, 바다, 언뜻, 숲을 지나 드디어 꽃밭을 찾게 되는 꿀벌의 즐거운 모험 이야기이다.

Small bees enrich nature and ecosystems they also play a role in gifting the benevolence of nature to humans. Using a pop-up book as a stage, an exciting adventure of a bee who finds its way to a flower garden after passing through mountains, gardens, sea, ponds, and forests unfolds.

# 물싸움 : 너무 오래된 전쟁 Water Fight



8월 3일 19: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8월 4일 18:00 영덕읍 거리공연

단체명: 극단필통 ( FEEL-TONG THEATER )

연출: 유재돈

극작: 선옥현

출연진: 이의현, 김정국, 소정은

야외극 물싸움이 선택한 갈등은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반목 과정이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요만큼도 나눠주지 않으려는 자와 없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폭력을 이용해서 뺏으려는 충돌인 것이다.

The Water Fight depicts antagonism between the privileged and unprivileged class.

It is a clash between those who have a lot but do not wish to share even an ounce, and those who've got nothing who try to violently take what they want.

## 크락션 Klaxon

8월 1일 19:3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금설복합예술소 (Gumsul)

연출 : 김신기

극작: 김신기

퍼포머 : 송은경



축제의 장, 어느 공원의 골목사이길. 오가는 사람들 속 많은 이야기.

쌓이고 쌓인 쓰레기속에 버려진 것은 우리의 꿈일까, 아니면 허상일까?

모두 사라져버리고 버려진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A festival venue. An alleyway in a certain park.

Stories exchanged by people passing by.

Is it our dreams or illusions that are dumped in the piled-up garbage?

The performance talks about things that have disappeared and have been abandoned.

# 초록드라마 텐트 극장 Green Drama Tent Theatre



8월 2일 10:30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

단체명: 극단 더베프 (The Befu Company)

연출: 이초록, 남은선

원작: 한성민, 유다정

극작(각본): 이초록, 남은선

출연진: 이초록, 남은선

모두가 행복한 세상, 행복한 초록섬. 그러던 어느날,  
초록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록 섬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초록 섬의 모든 것은 망가지고 부서진다.

The green island is where everyone is happy.  
However, as people visiting and living on the green island increases, everything is destroyed and broken.

# 고재경 마임쇼 GOJAEKYEONG MIMESHOW

8월 5일 19: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8월 6일 19:00 마을 공연

8월 7일 17:00 영덕읍 거리공연

단체명: 마임공작소 판 (Mime Factory PAN)

연출: 고재경

극작(각본): 고재경

출연진: 고재경



유머와 위트 해학으로 관객과 함께 진행하는 공연마임의 화려한 기술과 약간의 엉터리 마술로 구성된  
신기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With a little wit and humour, the show combines techniques of mime performance  
and a tinge of nonsense magic to fascinate the audience.

## 년버벌 네네네 nonverbal NENENE



8월 2일 19:00 - 영덕야성초등학교 마당

8월 3일 19:30 마을 공연

단체명 : 문화공작소 상삼마루 (SangSangMaru)

연출 : 김민정

출연진 : 성경철, 김혜경, 장아영

전세계 어린이가 공감 가능한 작품을 목표로 한 '네네네'는 북유럽 감성의 무대와 의상, 한국적인 강렬함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숲 속 동물, 자연과 교감하며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일깨워준다.

'Nenene' tries to speak to children across the globe, Nordic costumes and tastes and Korean colors and customs are merged on stage. It evokes joy and happiness in unpredictable places such as when freely moving in nature while communicating with the flora and fauna of the forest.

## 민어민간 Merman

8월 2일 17:00 영덕읍 거리공연

8월 2일 19:40 마을 공연

8월 3일 17:00 영덕읍 거리공연

8월 3일 18:30 마을 공연

단체명 : 백승환 (Baek Seung Hwan)

연출, 극작, 출연진 : 백승환



환경에 관한 어느 바다 청소부의 이야기이며,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바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열심히 바다청소를 하고 있는 그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온다.

마임, 인형, 오브제, 가면극 등 다양한 오브제와 움직임을 이용하여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It is the story of a person who cleans the ocean and has a good time with various sea creatures and friends he meets. While he diligently cleans the sea, an unthinkable crisis overtakes his life. Using various objects and movements such as mimes, dolls, objects, and masquerade, stories about the environment are told in a way that people of all ages can easily understand and enjoy them.



# 한 사람을 위한 마사지사 Massager for only one person



8월 5일 18:00  
영덕읍 거리공연

단체명: 비주얼씨어터 꽃 ( CCOT )  
작품명: 한 사람을 위한 마사지사  
연출,극작,출연: 이철성

마사지사가 참여자를 손님으로 받아 종이를 덮고 특별한 종이 마사지를 해준다. 이윽고 몸 형태 그대로의 종이인간이 태어난다. 종이인간은 살아나 그 원형인 참여자와 극적인 감정적 드라마를 펼치고,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소멸을 맞이한다. 참여한 모두가 인간의 나약함을 안아주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공연이다.

The masseuse receives the participants as guests, covers them with paper, and gives them a special paper massage. Eventually, a paper human with the same body shape is born. The paper human comes to life and unfolds a dramatic emotional drama with the original participant, and faces extinction by wind, water, and fire. It is a performance where everyone who participates embraces human vulnerability and reflects on its meaning.

## 할매는 힘이 세다 Grandma is strong

8월 4일 10:30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  
8월 5일 19:40 마을 공연

단체명: 창작집단 옆집사는연극쟁이  
(Creative Group 'Neighbor Actor')

연출,극작,출연: 백운선



꽃처럼 예쁘고, 산처럼 크고, 들처럼 넓고, 사람의 마음처럼 힘이 센 어떤 할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할매와 이웃들은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우리마을'을 떠나면 살길이 막막하다.  
할매와 이웃들, 그리고 동물 친구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친다.

It is a story about an old woman who is as pretty as a flower, as big as a mountain, as wide as the field, and as strong as the human will. Grandmother and her neighbors face difficulty when they're asked to leave their village that they have been farming in all their lives. The grandmother, her neighbors, and her animal friends embark on a secret operation to protect the village.

# 싸운드써커스 Sound Mix



8월 1일 21:00 영덕읍 덕곡천

8월 2일 19:00 마을공연

단체명 : 유상통프로젝트 ( UST Project)

연출,프로듀서: 유상통

극작(각본): 유상통프로젝트

출연진: 정열, 박성준, 오동석

사회적기업 노리단(noridan) 멤버로 활동한 유상통이 2019년에 창작한 음악퍼포먼스로서 폐기물악기연주, 마임, 퍼포먼스, 버블쇼, 탭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로 섞여서 만들어졌다. 싸운드써커스, 말처럼 싸운드가 섞다, 즉 섞었다를 표현한다.

“Sound Project” is a music performance created in 2019 by Sangtong Yoo, a member of the social enterprise called Noridan, by mix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waste instrument performance, mime, bubble show, tap dance, and musical into grand spectacle. Sound Circus, like its name denotes, is about the mixture of incongruous sounds.

# 마쯔와 신기한 돌 Matz and the Magical Stones

8월 6일 10:30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

단체명 : 이야기꾼의 책공연 (Bookteller’s Quilt)

연출: 이야기꾼의 책공연 공동연출

극작(각본): 이야기꾼의 책공연 공동작

출연진: 김지선, 김조민, 윤자영, 표두란, 이승연(악사)



넓고 넓은 바다 라는 한 줄 글에도, 사실 엄청난 세계가 숨어 있다. 다채로운 소리가, 향과 맛과 감촉이, 별별 사건과 풍성한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함께 상상하고 표현하는 순간 그 짧은 단어는 넓고 풍부하게 생생히 살아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짧은 말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미적 체험, <마쯔와 신기한 돌>은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관객과 함께 그 맛을 만들어 음미하는 연극이다.

There is a huge world hidden even in the sentence, ‘the wide and broad sea’. It is full of colorful sounds, scents, tastes and textures, several happenings and rich stories. When we imagine and use the tools of expression, these short words come to life. <Matz and the Magical Stone> is an aesthetic experience where short fleeting words come to life. It is a play that creates and savours life with an actively imagining audience.

# 초보목수와 목각인형 Carpenter with Marionette



8월 6일 17:00 영덕읍 거리공연

8월 6일 19:30 마을공연

단체명 : 창작극단 분홍양말 (Theater Pinksocks)

연출, 각본, 출연 : 이재홍

장난꾸러기 목수광대 흥. 그는 거리위에 이동식 인형극장을 만들어 거리의 관객들에게 목각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선보이는 목수광대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수광대와 관객 사이에 유쾌한 해프닝들이 생겨나고, 무대를 망가뜨리는 실수도 하며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다.

공연 초보목수 흥은 무사히 자신의 인형을 관객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을까?

The Mischievous carpenter down Hong creates a mobile puppet theater on the street and presents a wooden marionette puppet show.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hilarious incidents occur between the carpenter clown and the audience; he almost destroys the stage by accident. Will the novice be able to safely introduce his doll to the audience?

## 양팔저울 Weighing scales

8월 5일 19:30

영덕야성초등학교 앞마당

단체명 : 창작집단 지오 (Creative Team G.O)

연출 : 황태선

극작(각본): 김환일

출연진: 서성영, 정수연, 허혜수



극 중 등장하는 인물은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와 살인을 한 뒤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다. 연극 <양팔저울>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미 인류의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관객들은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작품이다.

The main character starts off unconvicted even after murdering a lawyer at a well-known law firm. The play <Weighing Scales> poses a questions such as 'Can human life be valued even when human systems have been broken?' and 'Can one human being convict another human's life?'

# 삼양동화 : 헨젤과 새엄마 Hansel and Stepmom



8월 3일 10:30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

단체명: 해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sun )

연출: 오준석

극작: 오준석

작곡: 조선형

출연진: 김명희, 최유하, 강민서, 김승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엄마는 충치로 죽을 위기에 놓인 그레텔을 위해 그린벨트 푸른 숲을 블랙벨트 어둠 숲으로 만든다는 무시무시한 마녀를 찾아간다. 그런 새엄마가 걱정되어 뒤따라온 헨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걸음씩 나아가는 헨젤과 새엄마의 모험과 무시무시한 마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다양한 가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The stepmom, who truly loves children, goes to find the terrifying witch, who turns the Green Belt Green Forest into a Black Belt Dark Forest, for Gretel who is suffering from a fatal tooth decay. Hansel follows after his mother and they go on an adventure hand in hand to uncover the identity of the terrifying witch. This production aims to open up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iverse families.



# 생명, 평화, 환경을 노래하다

## Singing of Life, Peace, Nature

### 나카 Nacca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일본 도쿄 출신, 채식 요리사, 강사, 싱어송라이터, 나유타카페, 나유타의 부엌대표.

Born in Tokyo, Japan, Nacca is a vegetarian chef, lecturer, singer-songwriter, and the owner of Nayuta Cafe and Kitchen.

심플한가사와 음, 속삭임 같은 노래는 습도와 투명감이 공존하는 세계를 수면의 파도처럼 퍼져 나간다. 독립영화음악, CF 음악 제작, 전자그림책이나 CF 등의 나레이션. 또 다양한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다.

Her simple lyrics, notes, and whisper-like songs spread like waves on the surface of a world where humidity and transparency coexist. She also does independent film music, commercial film (CM) music production, narration for electronic picture books and CFs, and collaborates with various artists.

### 이네 Ine

8월 3일 21:00 영덕읍 덕곡천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동네 가수다. 어디서나 막 도착한 사람의 얼굴로 두리번거리며 걷는다. 걸으며 발견한 것들을 일기나 편지에 담아 노래를 짓고 부른다. 가수나 작가보다는 생활가나 애호가를 꿈꾼다.

She is a local singer who walks around with a fresh set of eyes anywhere she goes. She writes about the things that enchanted her in her diary or in a letter then she turns them into songs. She dreams of living her passions and being a connoisseur than being a singer.

<꺼내지 못한 말>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메시지,  
<얼굴의 땅> 밀양 송전탑 운동에 참여한 할매들의 구술을 담은,  
<까만바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한 곡이다.

<Unspoken Words> delivers a message against livestock farming in factories.

<The Land of the Face> contains the statements made by grand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Miryang power transmission tower movement.

<Black Sea> It is part of a compilation album against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 미루 MIRU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8월 5일 21:00 영덕읍 덕곡천

8월 6일 21:00 영덕읍 덕곡천

노래를 부름으로써 존재들과 손을 잡고  
세계평화를 이루겠다는 원대한꿈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A singer-songwriter with a grand dream  
to connect with beings and attain world  
peace by singing.

<구멍> 누구도 구멍이 아니다. 닭, 그들도 그렇다.

끊임없이 착취되고 있는 동물들과, 축산업, 낙농업으로 인한 기후위기 또 한 맨트로 다뤄보고자 한다.

<사랑을 했네> 연대해야 한다는, 사랑해야 한다는, 자유롭게 평화로워야 한다는

내 마음이 흘러산으로 바다로 당기를 기도하는 노래이다

<노래를 하고 싶어> 무력하고, 납작하고, 자꾸 스러지지만, 그래도 나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노래를 하고싶다.

<Defect> No one is a defect, not even hens. Animals are constantly being exploited,  
and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livestock and dairy farming is a serious crisis to be dealt with.

<I Loved> is a song about solidarity, love, freedom, and peace.

<I Want to Sing> I am helpless and I constantly fail, but I am already on my journey.

I want to sing regardless of circumstances.

## 박선주 Sunju Park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8월 5일 21:00 영덕읍 덕곡천



## 이하루 Haru Lev

박선주의가야금 퍼포먼스와 이하루의 핸드팬 소리로 자연을 담아낸, 자연을 닮은 공연.

박선주는 전시, 무용, 인형극, 미술, 퍼포먼스 등 타예술 장르와의 실험적 융복합 시도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이하루는 60여 개국을 방랑하며 접한 다양한 문화권의 악기, 멜로디와 리듬을 터득해 여러 버스킹과 잼 세션에 참여했다.

Seonju Park creates works based on experimental fusion attempts with other art genres such as  
exhibitions, dance, puppet theater, magic, and performance.

Haru Lee took part in several busking and jam sessions, learning the instruments,

melodies and rhythms of various cultures that she encountered while wandering around 60 countries.



## 비디오로즈 Video Rose

8월 3일 21:00 영덕읍 덕곡천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사운드와비주얼을 중심으로다매체 예술을 지향하는아트그룹이다.

It is a group that pursues multi-media art with a focus on sound and visuals.

<두 번째 지구> 코로나19로 많은 공장들과 인간 활동이 멈추면서, 파란 하늘과 자연이 살아나는 아이러니한 풍경을 보고 만든 노래

<Mago> 마고 여신은 우리나라 창세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지만, 자연 파괴와 가부장제로 인해 신화가 점차 변형되면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제 폭력적인 세계에서 살아남아 다시 우리에게 온 마고여신의 부활 이야기.

<Tropical Planet> 점점 더워지는 행성인 지구를 풍자적으로 뮤직비디오와 음악으로 풀어냈다.

<Holy garden> 마법의 제비를 찾아, 밤이 되면 신성한 정원에서 춤을 추는 마법사. 인간이 잃어가고 있는 자연과 원시, 생명력으로 충만한 세계를 노래한다.

<Second Earth> is a song made while looking at the irony of the blue skies and nature reviving when several factories and human activities came to a halt due to COVID-19.

<Mago> is a goddess from a Korean creation myth. However, she had drowned due to the patriarchy and the destruction of nature. The song tells a story of resurrection of goddess Mago surviving a violent world.

<Tropical Planet>, global warming is satirically shown through the music videos and the lyrics.

<Holy garden> On the lookout for the Jebi bird, a sorcerer dances in the sacred garden at night, singing about the world where we're losing nature, the primitive state, and vitality.

## 팻햄스터 엔 칸뉴 Fat Hamster & KangNew

8월 3일 21:00 영덕읍 덕곡천

8월 4일 20:00 환경연극캠프 공연장

8월 5일 21:00 영덕읍 덕곡천

페미니스트이자 비건, 퀴어,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관점과 경험들을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에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As a feminist, vegan, queer, and simply a person living, I constantly reflect on how I could incorporate my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the world into the genre of electronic music.

Fat Hamster - Heatwave (feat. 박선주) PINZORO - Bad Cloud  
PINZORO - I Have More

Fat Hamster - Together Forever (feat. KANG New)

실시간으로 컨트롤되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보컬이 어우러져 신나는 무대를 연출합니다.

Real-time electronica music and vocals are combined to create an exciting stage.





## 아이씨밴드 IC Band

8월 6일 21:00 영덕읍 덕곡천

2011년에 만들어진 아이씨밴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 사람과 자연의 분기점으로써 음악을 통해 서로의 소통을 위한 음악활동을 하는 3인조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나, 자연에 대한 공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 공연하는 밴드다.

IC Band, created in 2011, is a three-member acoustic band that engages in music activiti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music as a junction between people, people and the world, and people and nature. It is a band that performs on current social problems, sympathy with nature, and creates the stories of our daily lives into songs.

## 카이다스 Kaidas

8월 2일 21:00 영덕읍 덕곡천

플라멩코 기타, 무용, 퍼커션으로 구성된 카이다스는 스페인 전통 플라멩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고민하는 단체다.

Kaidas, composed of Flamenco guitar, dance, and percussion, is an organization that attempts mixing various genres around the world with a focus on traditional Spanish Flamenco.



BULERIAS , FARRUCA , PANADEROS FLAMENCOS, GUAJIRAS  
플라멩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story about Flamenco.

# 율리아네 가브리엘 Juliane Gabriel



8월 4일 21:00 영덕읍 덕곡천

Juliane Gabriel은 1970년대의 정치 포크 가수들과 함께 자랐고, 18세기의 바로크 오페라와 80년대의 현대 클래식 음악을 불렀다. 그녀는 90년대에 자신의 노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샹송을 부르고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오랜 시간 성우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밴드 캐피탈 B와 함께 펑크 앤 소울 음악을 부르고 마이크 없이 기타와 첼로만으로 친밀한 콘서트를 하기도 한다.

오늘 그녀는 그 여정의 노래 중 일부를 공유할 것이다.

Finding your voice is a journey with many voices and languages.

Juliane Gabriel grew up with the political folk singers of the 1970s, sang baroque operas from the 18th century and contemporary classic music in the 80s She started to develop her own songs in the 90s, sang chansons and acted in theatre productions, has worked long time as a voice teacher and recently sings Funk and Soul music with her Band Capital B and also intimate concerts without a microphone with only guitar and cello. Today she will share some of the songs from that journey.

# 환경연극워크숍

## Environmental Theater Workshops



일시 : 2022년 7월 20일 ~ 8월 7일

장소 : 나무담음직임연구소 작업장 & 영덕

참여 아티스트 : 장소익, 임은혜, 홀라, 이종일, 설호중, 허훈 등

Artist collaboration for the production of the outdoor performance <Into the Big Mouth (큰 입 속으로)>

Date: 20.07 ~ 07.08.2022

Place: Namodak Movement Laboratory, Workshop & Yeongdeok

Participating artists: Jang Soh-ik (장소익), Lim Eunhye (임은혜), Holla (홀라), Lee Jungil (이종일),  
Seol Hojung (설호중), Heo Hoon(허훈) etc.

### 주요 내용

인형제작자, 장다리 제작자, 작곡가, 안무자, 연주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야외극 '큰 입 속으로' 시나리오에 기반 한 아이디어를 갖고 개별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협업을 통해 퍼레이드와 야외극을 제작한다.

작가들에 의해 디자인된 쇼케이스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공연예술캠프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100인의 야외극으로 발전시켜 국제환경연극제 폐막 공연으로 발표한다.

### Main contents

Writers of various genres, including doll makers, stilts producers, composers, choreographers, and performers, have ideas based on the outdoor play "Into the Big Mouth" scenario, and collaborate to produce parades and outdoor plays.

Based on the showcase designed by the artists, it was developed into an outdoor play of 100 local residents and participants in the performing arts camp and announced as the closing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heater Festival.



# 국내외 예술가 초청워크숍

## Workshops

**온앤오프무용단 [웜바디]**

**On and Off Dance Dance Company [Warm Body]**



**7월 28일 ~ 8월 1일 (개막공연)**  
**청송 나무땀움직임연구소**

해당 작품은 자연, 인간, 몸, 존재, 부드러움의 개념에 대해 질문합니다.  
4일 간의 워크숍 후 개막 공연을 선보입니다.

This work of art deals with questions about nature, humans, the body, existence, and the idea and concept of tenderness. After a four-day workshop, an opening performance will take place.

## **줄리아네 가브리엘 [소리]** **Juliane Gabriel [Sound]**



**8월 3일 ~ 8월 7일**  
**오전 10시~오후5시**  
**인문힐링센터 여명**

**8월 7일 오후 7시, 폐막공연에서 발표**

목소리를 의식의 통제를 위한 공간이나 연결고리로 생각함으로써,  
노래를 사용한 명상을 통해 몸에 대한 지혜를 넓혀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완전한 의식적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By thinking of the voice as a bridge toward or a space of conscious control,  
participants experience the joy of expanding the wisdom of our body in a song-like  
meditation to realize that there can not be a complete conscious understanding of the voice.

## **니콘 [잘자]** **Nikorn [Sleep Tight]**



**7월28~29일 오후 2시~5시**  
**7월30~8월3일 리허설**  
**예주문화예술회관**

본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대중과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이틀간의 워크숍과 공연이 진행됩니다. "슬립 타이트(Sleep Tight)"는 관객을 공간으로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잠들게 하는 몰입형 퍼포먼스입니다. 자연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영혼을 위로하여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워크숍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이야기 한 개와 한국 배우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A week before the main performances, this two-day workshop for the public and local artists will take place, concluding with performances. Sleep Tight is an immersive performance that invites the audience into a space where people gradually fall asleep while listening to stories. The stories have a therapeutic tone; a harmonious story of nature that relieves stress and anxiety, comforting the soul and bringing stability. At the workshop, a story about a person from Thailand and three stories about a Korean actor will be created.

## **아르나우밀라의 [사운드페인팅]** **Arnamumilla [Sound Painting]**



**8월 6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0분~4시30분**  
**8월7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예주문화예술회관**

"사운드 페인팅"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의식적으로 환경과 자연에 귀 기울이도록 유도하며 공간의 소리, 움직임 및 기호를 사용하여 즉흥 연주로 이어집니다.

The workshop helps participants practice listening to the environment and nature consciously. The activities lead to improvisation using the sounds, movements, and signs of space around us.

# 공연예술캠프 Performing arts camp



일시: 2022년 8월 3일~8일

장소: 영덕 청소년 수련장 (고래불 해수욕장)

참가자: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및 가족 40명 이내  
(11세 이상 청소년으로 하되 그 이하 연령은 보호자 동반 시 협의 후 결정)

Date: 03~08.08.2022

Place: Yeongdeok Youth Training Center - 영덕 청소년 수련장

Participants: up to 40 teenagers and families from all over the country

(Teenagers starting from 11 years old. The participation of younger children  
will be determined based on consultation and accompaniment by guardian)

## 참여강사및예술가

- 1) 퍼레이드를 위한 장다리 워크숍: 이선재, 송도원, 이도예
- 2) 100인의 야외극을 위한 합창 지도: 이종일
- 3) 100인의 야외극을 위한 재활용을 악기 제작 워크숍: 홀라 4인
- 4) 야외극 <큰입속으로> 연출: 장소익
- 5) 인형제작 감독: 임은혜
- 6) 음악: 설호중, 허훈, 하유리

## 주요내용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 가족, 문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캠프 운영  
4박5일 동안 합숙 하면서 장다리, 탈, 인형, 춤과 움직임 등의 거리 공연기술을 습득하고,  
야외극 <큰 입속으로> 공연자로 참여함.

## Participating Instructors and Artists

- 1) Stilts workshop for parade: Lee Seonjae (이선재), Song Down (송도원), Lee Doye (이도예)
- 2) 100 person choir for the outdoor play: Lee Jungil (이종일)
- 3) 100 person workshop on recycled instruments for outdoor play: Holla (홀라) 4 people
- 4) Pageant <Into the Big Mouth> Director: Chang Soik
- 5) Puppet Prodction Director: lim Eunhye
- 6) Music: Seol Hojong, Heo Hoon, Ha Yu-ri

## Main content

Boys and girls and their families, artist from around the country participate in a Performing Arts Camp.  
For 5 day 4 nights they stay together and learn street performance skills such as walking on stilts, moving  
and dancing with masks and dolls etc. and participating in the <Into the Big Mouth> outdoor performance.

# 포럼-환경과 공동체 예술

## 1) 기획의도

- \_ 환경문제와 공동체 문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로 실천해온 예술가, 문화 활동가들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공동체 예술행위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 \_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개발,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재난 상황 하에서 해체위기에 놓여있는 지역 공동체 문제를 살펴보고 동시대 삶과 사회문제를 더듬어본다.
- 공동체 예술의 현주소를 조명해보면서 우리 시대 문화예술이 나아갈 바를 모색해본다.

2) 일시: 2022년 8월 2일(화) 오후2시~5시

3) 장소: 영덕 교육지원청 초연관

## 4) 주요 내용

모두발언: 장소의 (나무닭움직임연구소)

주제발표 (70분)

- ① 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연극-이진교(안동대 민속학 교수)
- ② 환경과 예술행동-최수환(농부화가)
- ③ 독립영화로 담아낸 생명평화-이하루(독립영화감독)
- ④ 봄바람 길동무가 만난 공동체의 삶-딸기(문화활동가)
- ⑤ 공연예술캠프와 배움 공동체-노희숙(생협활동가, 마을 공동체)

토론발표 40분

- ① 커뮤니티 아트와 행동주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연극 프로젝트 - 박소영(영남대 미술사 교수)
- ② 지속가능한 극장, 지속가능한 연극 - 이성근(연극 평론가)
- ③ 해체된 공동체의 복원을 향하여 - 홍성민(문화활동가)

질의응답 및 자유 발언 20~30분

## 5) 주요 참석자

: 환경과 공동체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Environment and community art Forum

## 1) Intent

\_ We explore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t activities by looking at the activities of artists and cultural activists who have been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nd community culture and practiced as culture and arts.

\_ We look at the problems of local communities that are in danger of dismantling under glob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pollution, development, and COVID-19, and trace contemporary life and social problems.

- We will explore the way of culture and art of our time by shedding light on the current state of community art.

**2)Date:** 02.08.2022 (Tue) 2PM~5PM

**3) Place:** Yeongdok First Association of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 4)Main contents:

Presenter: Jang Soik (Namudak Movement Laboratory.)

Presentation (70 min)

- ① Environmental Theater with the Community - Lee Jin-kyo (Professor of Folklore at Andong University)
- ② Environment and Artistic Behavior - Choi Soo-hwan (Farmer Painter)
- ③ Peace in Life in an Independent Movie - Lee Haru (Independent Film Director)
- ④ The Life of the Community in the Spring Wind - Strawberry (Culture activist)
- ⑤ Performing Arts Camp and Learning Community - Roh Hee-sook (Lifetime Activist, Village Community)

### Discussion 40 min

- ① Park So-young (Professor of Art History at Yeungnam University)
- ② Lee Sung-gon (play critic)
- ③ Hong Seong-min (Culture activist)

Q&A and discussion 20~30 mins

## 5)Key participants

: Anyone interested in 'environment and community art'.



# 생태환경놀이터, 체험마당

생태 체험 및 환경놀이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수공예품 전시를 통해  
생명 평화를 향한 지구시민의 상상력을 만나봅니다.

## 1) 핸드메이드 비키니, 목걸이(랩실) 전시 \_ 8.5(금)~8.7(일)

매듭러, 뜨개 여행자. 실을 엮어 예쁘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며, 마켓과 워크숍을 핑계로 여행을 다닙니다. 특히, 바다를 좋아해서 여행하며 주워모은 조개나 산호, 씨글라스 등으로 목걸이나 팔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지구에 해가 되지 않고 오래 쓰이는 핸드메이드 라이프를 지향하며, 실을 엮으며 인연도 맺기를 즐깁니다.

## 2) 빈티지 의류 전시

비건 지향 빈티지 의류로 직접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하여 공장식 공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 3) 새 활용 환경놀이터 \_ 8월 3일(수) ~ 8월 6일(토)

다양한 생활 물품들을 활용하여 만든 놀잇감을 전시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놀잇감을 활용해본다.

## 4) 일리치 약국 \_ 8월 3일(수)~5일(금)

일리치 약국은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재미있는 약국입니다. 약을 원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함께 찾아 나서며, 삶을 기르는약을 처방해줍니다.

## 5) 목공놀이터 \_ 8월 6일(토)~7일(일)

냅비받침, 벽걸이 선반, 다용도 컨테이너 등을 만들며,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잘 만든 것 중 선정해서 목공품 시상도 한다.

일시: 2022.08.2.(화)~7(일)

장소: 2022국제환경연극제 행사장 (영덕 아성초등학교 운동장)



# Eco-environmental play experience garden and flea market

Through ecological experiences, environmental playgrounds, and handicrafts that pursue sustainability, we will meet the imagination of global citizens for life and peace.

## 1) Handmade bikini, necklace (lab room) Exhibition, 05.08 (Fri)– 07.08 (Sun)

Traveler who knits and knots. Weave threads to make pretty and useful things, and travel under the pretext of visiting markets and workshops. Especially, making necklaces or bracelets with clams, corals, and sea glass that you have collected while traveling because you like the sea. It aims for a life of handmade things that are not harmful to the earth and are used for a long time. Enjoy weaving threads and making relationships.

## 2) Vintage clothes exhibition \_

Vegan-oriented vintage clothing is printed directly on a silk screen and does not go through a factory-style process.

## 3) New Environmental Playground \_ 03.08 (Wed) – 06.08 (Sat)

Exhibits toys made using various household items, thinks about the environment, and utilizes them.

## 4) Illich Pharmacy \_ 03.08 (Wed) – 05.08 (Fri)

Illich Pharmacy is an interesting pharmacy that prescribes minimal drugs. Talking to the person who wants the medicine they find out what you are lacking now, and they prescribe life-building medicine.

## 5) Woodworking playground (목공놀이터)\_ 06.08 (Sat) – 07.08 (Sun)

Make napkin stands, wall shelves, multipurpose containers etc., make anything you want freely and select one of the well-made ones so they can receive an award.

Date: 02 (Tue) – 07(Sun).08.2022

\_ Place: 2022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heater Festival



#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de it possible

2022국제환경연극제 스텝

## STAFF

총감독 (General director): 장소익 (Jang Soik)

기획감독 (Planning director): 임은혜 (Lim Eunhye)

사무행정 (Administrative Officer): 심미예 (Shim Miye)

상황실장 : 김민섭 (Kim Minseob)

무대감독 (Stage director): 신동재 (Shin Dongjae)

음향감독 (Sound Director): 박형주 (Park Hyeongjoo)

조명감독 (Lighting director): 손종화 (Son Jonghwa)

영상감독 (Video Director): 황세현 (Hwang SeHyeon)

홍보 (Promotions): 이혜민 (곤리) (Lee Hyemin - Gonlee)

워크숍매니저 (Workshop manager): 하유리, 남수민 (Han Yuri, Nam Soomin)

통역 (Interpreter): 조현진, 디디 (Joe Hyeonjin, Dyd)

환경연극 캠프팀장 (Environmental Theatre camp team leader) :이선재 (Lee Seonjae)

캠프매니저 (Camp manager): 송도원, 이도예 (Song Dowon, Lee Doye)

무대지원팀 (Stage support team): 심종석, 김인혜, 이가희, 김지영, 김학수, 이세민

(Shim Jongseok, Kim Inhye, Lee Gahee, Kim Jiyeong, Kim Haksoo, Lee Semin)

플리마켓 운영 (Flea market organiser): 최성우 (Choi Seongwoo)



영덕문화관광재단  
나무닭움직임연구소 공공예술프로젝트  
2022 국제환경연극제 블로그



국제환경연극제



@ietf2022



2022 국제환경연극제

문의 : 영덕문화관광재단 054-730-5831



